

2008 한국의 정치 상황과 여성 평화운동

한국의 분단상황

한국은 식민지 지배 후 타의에 의해 분단되었다. 단독정부 수립, 전쟁, 휴전을 겪었고 냉전 상황 속에서 극한적으로 대립했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한반도에서는 냉전 계속.

미국이 가장 중요한 독립 변수 중 하나.

북한, 미국, 중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

남북 관계의 변화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권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김 영삼 정권 하에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 발생

1998. 2. 김대중 대통령 취임. 햇볕 정책

2000. 6. 15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 간 인적, 물적 교류

부쉬 미 정부와 북한의 갈등.

2002. 1. 미 정부 북한을 다른 두 나라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

여성, 동북아평화를 말하다

남윤인순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들어가는 말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6자회담 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핵문제는 진전되고 있지만 2008년 2월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북핵폐기 우선을 내세우며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어 6자회담에서 한국의 역할과 발언권은 과거와 같지 않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국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는 마당에 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평화를 염원하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한국의 여성단체, 여성의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각국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계기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조치들이 조속히 이행되고, 남북관계도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발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1. 남북관계의 역사적 변화

1945년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1948년 남, 북이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되기 시작했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지금까지 분단된 채 살아가고 있다. 1970년 초반 동·서 데탕트가 진행되면서 남북관계도 변화가 일어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하면서 남북 최초로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면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발표되었다. 1980년대 후반 냉전질서가 해체되면서 남북관계는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는 등 간헐적이지만 남북 정부 당국자간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민간의 방북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임수경씨가 평양을 방문하고 휴전선을 통해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탄압 속에서도 통일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7년 북한에서 큰물피해로 식량 기근이 심각해지자 남한에서는 북한동포돕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난다. 1998년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면서 대북정책이 대립에서 화해협력으로 전환되면서 2000년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다. 6.15 공동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가족 및 친척 방문단을 교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사이의 정부와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활발히 일어났다. 2002년 참여정부가 등장하면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사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 10월 남북정상선언¹⁾이 채택되었다.

2.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과 통일·평화 정책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이라는 기초에서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6.15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실천 약속이 없자 북한은 사실상 '통미봉남'의 길로 들어가 대화를 중단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관

1) 2007년 10월 4일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10가지 합의사항에 서명함. 그 내용은 1. 6.15 공동선언 적극 구현, 2. 상호존중과 신뢰의 남북관계로 확고히 전환, 3.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4.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핵문제 해결 노력, 5. 남북 경협 확대·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6.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포럼 등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발전, 7.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 추진, 8.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위한 협력 강화, 9. 남북정상선언을 위한 총리회담을 11 중 서울에서 개최, 10.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이 수시로 만나 현안문제 협의

광이 중단되고 민간교류도 중단되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의 중요 변수인 북핵문제는 단계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북관계도 국제적인 흐름 안에서 평화적인 기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1)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 북핵문제의 현주소(2008, 김성배)

- 2002년 10월 2차 북핵위기 발생 후 관련국들은 6자회담을 탄생시키고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최초로 북한의 핵폐기 공약을 명시적으로 담은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바 있음.
- 9.19 공동성명 직후 돌출한 BDA 금융제재 문제와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인 2.13 합의 채택 ;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BDA 금융제재 해제가 핵심
- BDA 금융제재라는 난제를 푸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지만 결국 핵폐기를 위한 2단계 조치를 담은 10.3 합의 도출 ; 북한의 핵신고 및 불능화 시한(07.12.31)과 관련국들의 상응조치 명기
- 북한의 핵신고 시한을 넘겼지만 북미간 집중 협상으로(4.8 싱가포르 합의) UEP, 시리아 핵협력 문제를 우회적으로 돌파
- 북한의 핵신고 및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 배제 /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 통보(6.26)로 2단계 조치가 마무리 국면에 진입
- 2차 북핵위기가 발생한지 거의 6년만에 9.19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위한 3단계 진입의 토대 마련
- ARF(7.22-24)를 계기로 6자 외교장관 회동

○ 북핵문제와 남북관계(2008, 김근식)

- 남북관계의 유지와 발전은 북핵문제 악화를 막아내는 안전판이면서 동시에 북핵문제 진전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임.
- 6자회담이 대결국면을 지속할 때는 그로 인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완화시키고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남북관계였음.
- 6자회담이 협상국면에 진입할 때에는 북한과 미국의 타협을 더욱 가능하게 하고 북한의 건설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도 남북관계임.
- 2005년 6자회담이 장기공전되는 상황에서 이른바 6.17 면담을 성사시킴으로써 북한의 회담복귀를 이끌어냈음. 남북관계 진전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동시에 6자회담 진전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시병행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함.
- 경색된 남북관계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음.
-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음.

-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한국 정부는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

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내용과 문제점, 과제(2008, 김근식)

○ 대북정책 방향 : 비핵, 개방, 3000

- 비핵 : 북핵 폐기 우선, 북핵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독자적인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
- 개방 :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며 상호주의 강조
- 3000 : 북한의 국민소득 3000불 달성 지원

○ 대북정책의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호주의' '북핵연계' '인권개선' '한미공조' 등의 구호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음.
-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강조하며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된 상태임.
- 비핵화와 개방 정도에 맞춰 남북경제협력을 연계한다는 구상인데 결국 북한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됨.

○ 대북정책 과제

- 북핵상황 진전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야 함
-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고, 10.4 정상선언을 실천하겠다는 의지 표명
-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중단된 남북 당국간 대화를 복원해야 함.
- 조건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해야 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행해 나가야 함.
- 6자회의에서 한국의 적극적, 전향적 역할을 찾아야 함

3. 한국여성운동의 통일·평화운동 흐름

10년전만 해도 한국의 여성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이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남북여성교류 활동을 통해 남한의 많은 보수층 여성들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직 통일운동내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높지 않지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내에서 30% 여성할당제가 제도화되어 있다.

또한 진보적인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남북여성교류, 북한 여성 및 어린이 지원사업, 한반도 및 국제 평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통일·외교정책에 여성의 참여 확대, 평화교육 및 평화문화 확산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위의 활동 이외에 통일운동에 여성주의 관점을 결합해서 차이에 대한 소통과 관용, 갈등중재 등 평화적 과정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1) 남북여성교류활동2)

- '아시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1991년-1993년/ 동경, 서울, 평양, 동경에서 개최)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여성연대(1993-)
 - 정대협 주최 제 3차 종군위안부아시아연대회에 북한 참가(1995)
 -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인권에 관한 남·북·일 여성의 3자회담(1998)
 - 종군위안부 문제 남·북·일 토론회(평양, 2002)
- 대북지원 여성교류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여성협력(1997년-)
 - 밥나누기 사랑나누기 운동 : 북한 어린이에게 분유 26톤 보냄(1997)
 - 북한 어린이 내북보내기 운동(2001)
 - 북녘 룡천돕기 모금운동(2004)
 - 북한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2006)
- 교류활동
 -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 시 남북여성상봉모임 및 토론회 개최(2001년-2008년)
 -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성본부 결성
 - 2002 남북여성통일대회(금강산), 2005 남북여성통일행사(2005)
 - 남북여성대표자회의(2006년,2008년 / 금강산)

2) 평화만들기 활동

- 반전평화운동 전개
 -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2004)
 -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대책활동(2002)
- 평화교육, 평화문화 확산(수시로)
 - 갈등중재교육 강사양성 및 교육 확산
 - 평화교육 아카데미를 통한 평화교육 지도자 양성
 - 평화를 주제로 한 노래, 아동극 제작 및 순회공연

3) 통일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요구

- 통일, 국방, 외교 관련 정부 위원회에 여성 50% 참여 요구
- 통일부 산하 여성정책전담부서 설치 요구
- 통일, 외교, 국방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요구(유엔 안보리 1325조항 실천 요구)

2) 한국 여성운동의 남북여성교류활동 전부를 포괄하지 못했다. 동북아여성평화회의 추진위원회에 속해 있는 단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음.

4. 한국여성운동의 통일·평화 과제

지금까지 한국의 여성평화운동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다. 여성 대중들이 통일, 평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통일, 평화에 대한 관심이 적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분쟁지역에서 여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가 분쟁지역 위험국가로 남아 있는 한 여성, 아이들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평화감수성이 높은 여성들이 적극 나서서 한반도 통일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1) 정부에게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실천 촉구

- 10.4 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공동행사 개최
-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제정

2) 남북여성교류의 대중적 확산 및 남남, 남북 여성간의 통일문제 인식차이 해소 노력

- 남북여성교류 정례화 및 여성 내 다양한 부문 간의 교류로 확대
- 보수, 진보 층을 아우르는 여성평화토론회 등 활성화

3) 통일, 국방, 외교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및 젠더관점 도입 요구

- 유엔안보리 1325 조항을 현실화하기 위해 통일, 외교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 통일, 외교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4)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여성연대 구축

-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중요성 여론화
- 동북아여성평화실천 네트워크 구성

5) 지속적인 통일·평화교육, 평화문화 확산

- 여성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통일, 평화 교재 개발 및 보급
- 평화노래, 평화인형극 등 보급
- 일상속의 평화를 위한 생활문화 개선

6) 여성, 평화 NGO의 역할 확산과 역량 강화

- 평화형성자로서 여성의 평화 역량 키우기
- 평화, 통일문제 여성전문가 육성

맺는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형성된 평화·통일의 기운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국제적인 흐름은 북핵문제의 단계적 해결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는 큰 틀에서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6자회의 틀 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6자회의에서 각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평화는 필수적 조건이다. 평화형성자로서 우리 여성들은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과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김성배,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관계', 민화협 정책토론회, 2008

김근식,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남북관계', 민화협 정책토론회, 2008

Women, on Peace in Northeast Asia

By Nam Yoon In-soon

Executive Chairman,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Introduction

With the recent standstill in inter-Korean relations, there are concerns that South Korea's role in the Six-Party Talks may be weakened. Although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s progressing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ince its inauguration in February 2008, has called for the North to first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thereby driv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into a standstill and weakening the ROK's role and voice within the Six-Party framework. Seoul should reconsider adopting a policy where it foolishly and willingly gives up its role just as the multilateral effort to re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peacefully is about to reap good results.

Amidst this situation, it is truly meaningful that women's group representatives, women lawmakers and experts from Japan, China, Russia, the U.S. and the ROK, who all year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re gathering to seek the role of respective countries in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establishing peace in the region. Taking the Northeast Asia Women's Peace Conference as an opportunity, we hope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ill carry out their measures to resolve the nuclear problem promptly, and North-South relations will shift to a peace regime.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North Korea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and its problems, and the history and challenges of women's movement in Korea in the effort to establish peace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1. Historical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1945, the Korean Peninsula was first divided when the North and the South established their independent governments in 1948. Since the conclusion of the 1953 armistice to temporarily end the 1950 Korean War, the two sides have lived divided until today. The East-West détente in the early 1970s also brought about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President Park Jeong-hee initiated the inter-Korean Red Cross talks in 1972, and for the first time, the two sides adopted the July 4th North-South Joint Statement, through which the three principles of national unification (self-reliance, peace, national solidarity) were announced.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tructur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inter-Korean relationship took an important turn. Although intermittent, dialogue between Seoul and Pyongyang continued, such as the 1991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During this time, South Korean civilians were not allowed to visit the North. But in 1989, Lim Soo-kyung visited Pyongya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National Conference of University Student Councils and returned south via the DMZ. The event marked the formal beginning of unification mov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efforts to repress the movement. When North Korea suffered from heavy flooding and food shortage in 1997, a national drive to help ourbrothers in the North began in the South.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Government in 1998, Seoul's North Korea policy shifted from confrontation to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the historic June 15th Joint Declaration was adopted in 2000. Through the Joint Declaration, the two Koreas agreed to resolve the question of reunification independently and through the joint efforts of the Korean people, promote cooperation and exchanges in economic, civic, cultural, sports, health, environmental and other fields, and allow exchange visits by separated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The June 15th Declaration was another turning point in inter-Korean relations, which led to various and active exchanges,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established in 2002, adopted the policy of peace and prosperity, and carried out specific projects for economic cooperation, such as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n October of 2007, the Inter-Korean Summit Declaration was adopted.

2.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2008, and the Current

Situation on Unification/Peace

The present Lee Myung-bak government is pursuing an inter-Korean relationship of mutual benefits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foundation of the past governments' policies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peace and prosperity' during the last ten years. Not seeing any promise from the South on implementing the agreements of the June 15th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th Summit Declaration, Pyongyang declared that it would 'embrace the U.S. while sidelining South Korea' and has stopped dialogue with Seoul. Tourist exchange is also at a standstill since the shooting and death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Mt. Geumgang, and civilian exchanges have also stopped. However, because the nuclear issue, which is an important variable in establish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gradually progressing,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also be developed towards a foundation of peace within the wider international trend.

1)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Inter-Korean Relations

○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2008, Kim Seong-bae)

- After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rupted in October 2002, the concerned countries established the Six-Party Talks and, through focused consultations, concluded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which stipulates for the first time that Pyongyang would dismantle its nuclear programs.
- Right after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the BDA financial sanction problem and the North's nuclear testing led to another crisis. But the parties overcame the crisis and took the initial step to implement the September 19th Statement by adopting the February 13th Agreement. The agreement stipulated the deadline for Pyongyang's nuclear declaration and disablement (December 31, 2007) and the corresponding measures to be taken by the other parties concerned.
- Although North Korea missed the deadline for declaring its nuclear programs, intense negotiation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pril 8th Singapore Agreement) enabled an indirect breakthrough in the UEP and Syrian nuclear

cooperation issues.

- The second-phase actions (on implementation of the Joint Statement) drew near to a close with North Korea declaring its nuclear programs, and the U.S. announcing that it would lift the application of Trading with the Enemy Act on the North and remove it from the list of State Sponsors of Terrorism (June 26).
- Almost six years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erupted, the foundation for starting the third-phase actions for "abandoning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lans," as stipulated in the September 19th Joint Statement, was established.
-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Six Parties convened at the ARF (July 22-24).

○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and Inter-Korean Relations (2008, Kim Geun-shik)

- Maintaining and develop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functions as a safety valve against the nuclear problem and, at the same time, a minimum necessary condition for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 The North-South relationship eased ris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and acted as a safety valve whenever there were confrontations within the Six-Party Talks.
 - When negotiation progressed within the Six-Party framework,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facilitated agreement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and induced the North to act constructively.
 - During the long-term standstill of the Six-Party Talks in 2005,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enabled the June 17th meeting, thereby drawing North Korea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It is important to have a virtuous cycle in which progress in North-South relations contributes to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and concurrently, progress in the Six-Party Dialogue contributes to further improvement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 The stalemated inter-Korean relationship is weakening South Korea's role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 When discussion o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formally begins in the future, South Korea's position will be weak if its relationship with the North continues to be deadlocked.
- By reviv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e ROK government should actively engage in changes that are occurring on and around the Peninsula.

2)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Contents, Problems and Tasks (2008, Kim Geun-shik)

○ Direction of the North Korea policy: denuclearization, openness, 3000

-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should first abandon its nuclear weapons; without progress on the nuclear issue, independent progres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is virtually impossible.
- Openness: North Korea will be asked to improve its human rights record, and reciprocity will be emphasized.
- 3000: South Korea will help raise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to \$3000.

○ Problems of the North Korea policy

-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has only catchphrases, such as 'reciprocity', 'linkag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situation', 'U.S.-ROK cooperation', and no specific contents.
- There is emphasis on strict reciprocity of 'give and take', and even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has stopped.
- The idea is to link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level of denuclearization and openness. Thus, if Pyongyang does not budge, the Lee government will not be able to start anything.

○ Challenges in the North Korea policy

- Taking the progress in the nuclear issue as an opportunity, the currently deadlocked inter-Korean relationship should be restored.
- The ROK government should abide by the agreements under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and show commitment to fulfilling the October 4th Summit Declaration.
- It should resolve the Mt. Geumgang tourist shooting incident prudently, and revive inter-Korean dialogue that has since stopped.
- Seoul should provide food, fertilizer and other humanitarian assistance without condition.
- The agreements under the October 4th Summit Declar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establish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ROK government should seek out a new and more active role within the Six-Party framework.

3. History of Efforts for Unification/Peace in ROK Women's Movement

Until just a decade ago, South Korean women were rather disinterested in the issue of unification. But over the course of the past ten years, continuous exchanges between the women of the two Koreas have led even South Korean women belonging to conservative groups to no longer define North Korea as an enemy but rather a partner for cooperation. Although women's voice in the unification movement is still not strong, a 30% women's quota has been institutionalized within the South Korean Committee on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Moreover, with the progressive women's movement at the forefront, various activities to promote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are taking place, such as projects to support North Korean women and children, promotion of peace on the Peninsula and in the world, enhancement of women's participation in unification/foreign policy, expansion of peace education and peace culture, etc.

Aside from continuing these activities, women's movement in South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specific programs for peaceful unification, such as

presenting women's point of view in unification efforts so that differences can be understood and embraced, and conflicts can be mediated.

1)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 Forum on "Peace in Asia and the Role of Women" (1991 to 1993, in Tokyo, Seoul, Pyongyang, Tokyo)
- Inter-Korean Women's Solidarity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Issue (1993~)
 - North Korean participation in the 3rd Asia Solidarity Conference on Comfort Women organized by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1995)
 - North-South-Japan trilateral conference on comfort women and women's rights issues (1998)
 - North-South-Japan discussion on comfort women issue (2002, Pyongyang)
- Inter-Korean women's cooperation through provision of assistance and humanitarian aid to the North (1997~)
 - "Sharing Food, Sharing Love" campaign: 26 tons of powdered milk sent to North Korean children (1997)
 - Campaign to send undergarments to North Korean children (2001)
 - Fund-raising to help victims of Ryongchon disaster (2004)
 - Fund-raising to help North Korean flood victims (2006)
- Exchanges
 - Inter-Korean women's meeting and discussion held during the June 15th and August 15th joint national festivals (2001 to 2008)
 - Establishment of the Women's Headquarters of the North-South Joint Overseas Event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June 15th Joint Declaration
 - 2002 North-South Women's Unification Convention (Mt. Geumgang), 2005

North-South Women's Unification Event (2005)

- North-South Women Representatives' Conference (2006 and 2008, Mt. Geumgang)

2) Peace-building Movement

○ Anti-war peace movement

- Various activities opposing the dispatch of troops to Iraq (2004~)
- Fact-finding and response to the death of middle school girls hit by a USFK armored vehicle (2002)

○ Expanding peace education and peace culture (on-going campaign)

- Fostering instructors of conflict mediation and expansion of related education
- Fostering peace education leaders through the Peace Education Academy
- Composing songs and producing children's plays and touring performances on the theme of peace

3) Demand for Wider Women's Participation in Unification-Related Policy Making

- Seek 50% women's participation in government committees related to unification,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affairs
- Pres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omen's policy department under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Call for gender impact assessment of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defense policies (calling for the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4. Unification/Peace-Related Tasks of ROK Women's Movement

Women's peace movement in South Korea has, to date, involved diverse and dynamic activities, and more women have become interested in unification and peace. Most women, however, are still disengaged from these issues. Globally, it is becoming evident that women in conflict zones suffer from serious and sometimes even fatal conditions. Accordingly, as long as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a dangerous conflict zone, peace for women and children cannot be maintained. Women, who have a high sensibility for peace, will have to participate proactively in the effort towards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 in Northeast Asia.

- 1) Urge the government to implement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and the October 4th Summit Declaration
 - Organize a North-South joint event for implementation of the October 4th Summit Declaration
 - Institute a commemoration day celebrating the June 15th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 2) Exert efforts for wider North-South women's exchanges among the public, and narrow the gap in understanding unification between the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among South Korean women
 - Hold regular inter-Korean women's exchanges, and expand to include exchanges among various women's sectors
 - Promote women's peace discussions that encompass conservatives and progressives

- 3) Demand wider participation of women and the adoption of gender perspectives in unificati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ies
 - Expand women's participation in unification and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to realiz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 Conduct gender impact assessment on unification and foreign affairs policies
- 4) Establish an international women's solidarity for building a peace regime in Northeast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 Publicize the importance of attaining a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 Establish a Northeast Asian women's network for achieving peace
- 5) Expand continuous education on unification/peace and culture of peace
- Develop and provide various teaching materials on unification and peace, which are accessible to women
 - Popularize songs and puppet shows on peace
 - Improve living culture to make peace a matter of everyday life
- 6) Expand the role of women and NGOs working for peace, and build capacity
- Enhance women's role as peacemakers and their capacity for peace
 - Develop women experts on peace/unification issues

Conclusion

The inauguration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brought about another crisis to the atmosphere of peace and unification that had been fostered through the efforts of NGOs. However, internationally,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is gradually progressing,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expected to move forward as well within this larger framework. Nevertheless, the current administration will have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and play a leading role in the Six-Party Talks in order to draw out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other parties in the framework.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peace in Northeast Asia. As peacemakers, we women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n inter-Korean peace regime, and furthermore, engage in efforts for peace in Northeast Asia.

<References>

Kim Seong-bae, "Prospects for Resolving the NK Nuclear Issue, and Inter-Korean Relations",

policy discussion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08

Kim Geun-shik, "Prospects for Resolving the NK Nuclear Issue, and Inter-Korean Relations",

policy discussion of the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2008